

2019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그리스도인의 생활

메시지 4

그리스도 안에서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심

성경: 고후 4:4, 6-7, 3:18, 마 17:2, 엠 5:8-9, 계 22:4 상, 5 하, 21:23

- I. “그들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고후 4:4.
- A.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 속을 밝게 하고 빛나게 하고 비추다 — 히 1:3, 고후 4:6.
 - B.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 딤후 1:11.
 - C.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심으로써, 이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다. 이 영광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 찬송을 받으신다 — 히 1:3, 엠 1:3, 6, 12, 14.
- II.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 고후 4:6.
- A.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빛을 비추신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는 것, 즉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빛이다 — 고후 4:4, 6.
 - B.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사랑스러운 인격이시며 그분의 얼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 고후 4:4, 6, 마 17:2.
 - C.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된 영광의 하나님이다. 그분을 아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 행 7:2, 히 1:3.
 - D.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더 비추실수록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더욱 빛을 비추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신 분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도록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먼저 우리 안으로 비추며 그 후에 우리 속에서부터 비추어 나간다 — 요 1:18, 마 5:16, 빌 2:15.
- III.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 고후 4:7.
- A.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밝히는 것을 통해 믿는 이들이 탁월한 보배이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이제 그리스도의 빛나는 실재, 곧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자 표현이 우리 속에 있는 보배이다 — 고후 4:6-7.
 - 1.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배하시는 것인 하나님의 빛비춤은 보배, 곧 삼일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이끌어 온다. 이분은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신다 — 고후 4:4, 6-7, 골 2:9, 3:4, 11, 고전 15:45 하.

2. 이 지극히 귀한 보배, 곧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공급하는 신성한 근원이시다 — 빌 4:13, 고후 13:5, 4:7.
- B. 이 지극히 귀한 보배는 가치 없는 그릇들이 지극히 귀한 사역을 하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게 했다. 이러한 일은 부활 안에 있는 신성한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탁월한 능력은 분명히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 고후 3:6, 1:9, 4:7.
- C. 우리가 비추는 것을 통해 영광의 복음을 받은 이들은 그들 안으로 분배된 귀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우리처럼 가치 없는 그릇들이지만 이 지극히 귀한 보배를 담은 이들이 될 것이다 — 고후 4:4, 6-7.
- IV.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 고후 3:18.**
- A.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을 보는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B. 주님의 영광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그분 자신과 그분께서 성취하시고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실재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되고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이런 방식으로 그분은 우리를 그분과 똑같이 만드신다 — 눅 24:46, 히 2:9, 고후 3:18, 롬 8:29.
- C. 이것은 부활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계속되는 과정이다 — 고후 3:18.
- V.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 엡 5:8.**
- A.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 요일 1:5, 엡 5:8, 요 12:36.
- B. 우리는 빛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빛 자체이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빛이다 — 마 5:14, 요일 1:5.
- C. 우리가 빛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의 영역 밖에 있다 — 요일 1:7.
- D.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행할 때 우리는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묘사된 열매를 맺을 것이다.
1. 빛의 열매는 본성에 있어서 선하고 절차에 있어서 의롭고 표현에 있어서 참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행함의 실재로서 표현되실 것이다.
 2.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는 빛의 열매는 삼일 하나님과 관련된다.
 - a. 선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빛의 열매의 본성이시다. 그러므로 9절에서 선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킨다 — 마 19:17.
 - b. 의는 아들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절차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 롬 5:17-18, 21.
 - c. 빛의 열매의 표현인 참은 그 영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 이유는 그분이 실재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 요 14:17, 16:13.
- VI.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계 22:4 상, 5 하.**
- A. 하나님과 어린양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이 영원 안에서 누리게 될 삼일 하나님의 축복일 것이다 — 계 22:4 상.
- B. 어린양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비추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비춤 아래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 계 22:5 하, 21:23.